

석유 · 화학기업 부채비율 높아졌다!

한국은행, 3월말 102.5%로 6.4%p ... 차입금의존도는 26.7%로 낮아져

국내 제조기업의 부채비율은 3월말 현재 96.2%로 2004년 말 93.7%보다 소폭 상승했다.

1/4분기 중 제조업을 중심으로 미지급 배당금 등 비차입성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1537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1/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3월말 현재 현금보유액은 40조7000억원으로 2004년 말의 40조9000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2005년 3월말 현재 조사대상 상장·등록법인 제조기업의 부채비율은 87.4%로 2004년 말 83.8%보다 3.6%p 상승했으나 2004년 3월말 96.7%에 비해서는 9.3%p 하락했다.

2004년 말에 비해 제조업 부채비율이 다소 높아진 것은 미지급 배당금 계상 등 계절적 요인과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업종의 매입채무 증가 등 비차입성 부채가 늘어난데 기인하고 있다.

차입금의존도도 20.2%로 2004년 말 20.1%에 비해서는 0.1%p 상승했으나 2004년 1/4분기 말보다는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제조업의 재무구조 관련지표

(단위: %, %p)

구 분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2004.12	2005.3	증감	2004.12	2005.3	증감
제조업	83.8	87.4	3.6	20.1	20.2	0.1
음식료·담배	74.3	81.8	7.5	22.0	24.6	2.6
섬유·의복	100.8	101.8	1.0	32.9	33.3	0.4
목재·종이	102.1	103.8	1.7	32.6	33.4	0.8
석유·화학	96.1	102.5	6.4	27.3	26.7	-0.6
비금속광물	72.4	75.5	3.1	27.2	29.0	1.8
금속제품	67.6	69.2	1.6	21.6	21.8	0.2
기계·전기전자	63.5	66.8	3.3	16.1	16.4	0.3
(산업용기계)	114.5	120.8	6.3	23.6	23.9	0.3
(전기 전자)	58.2	61.3	3.1	15.0	15.3	0.3
운송장비	130.2	133.5	3.3	12.8	12.1	-0.7
가구 및 기타	58.7	60.5	1.8	14.0	14.0	0.0

2005년 3월말 현재 부채비율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2004년 말보다 다소 높아진 가운데 음식료·담배는 74.3%에서 81.8%로, 석유·화학은 96.1%에서 102.5%로, 산업용 기계는 114.5%에서 120.8%로 높아져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차입금의존도도 대부분이 소폭 상승했으나 석유화학은 27.3%에서 26.7%로, 운송장비는 12.8%에서 12.1%로 다소 하락했다.

<화학저널 2005/06/27>